

해경, '헬기 추락사고 순직 경찰관 영결식' 내일 엄수

부산 시민장례식장에 합동분양소 설치 8일 오전 제주 남서쪽서 헬기 'S-92' 추락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헬기(S-92)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양경찰관 3명의 합동 영결식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

서 해양경찰장(葬)으로 엄수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3명의 해양경찰관은 고

(故) 정두환(50) 경감, 고 차주일(42) 경사, 고 황현준(27) 경사로 모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소속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희생자의 송고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부산 시민장례식장에 합동분양소를 설치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시32분께 제주 남서쪽 약 370km 해상에 남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헬

기 'S-92'가 추락했다. 이 헬기는 대만 서쪽 약 18해리 해상에서 예인선 '교토 1호'가 조난 당했다는 통보를 받고 수색·구조를 위해 급파된 해경 경비함정 3012함에 중앙특수구조단 6명과 장비를 이송했다. 이후 주유를 위해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려던 헬기는 3012함에서 이륙한 지 30~40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했고, 탑승자 4명 중 부기장과

전탐사 등 2명이 숨지고, 정비사 차모(42) 경장이 실종됐다. 기장은 중상을 입고 제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순직자들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등의 예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진기자



세월호8주기 시민 행진 마친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8주기 국민대회 및 시민 행진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휴일 대낮 달리던 차량에 맥주병이 '퍽'

달리던 차량이 어디선가 날아온 맥주병에 유리창이 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북구 침산동 신천대교 성북교 인근을 지나던 A씨의 차량이 날아온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병에 맞아 뒷유리가 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맥주병이 충돌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씨의 동승자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천대로변 인근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병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플라스틱 재질의 PET 맥주병으로, 내용물이 들어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비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초비상...야생멧돼지 포획 늘린다

정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야생멧돼지 집중 관리 및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을 골자로 하는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보은 및 충주(1월28일) ▲경북 상주(2월8일) ▲울진(2월10일) ▲문경(2월22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상황에 따라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한다. 상설포획단,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서식 밀도를 ㎏당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를 상대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해 서식상황 정보기반 체계화에도 나선다.

민간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양·음성 구분 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kg 이상) 포획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도 함께 추진한다.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마련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 관리 상황, 경작 활동(털발 포함) 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한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 차량 786대를 동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이 밖에 전국 한돈협회 지부장 및 양돈조

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농협 등을 통해 양돈조합 또는 회원 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 교육 및 영상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등 개체수 서식밀도를 줄이는 데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출하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